

<Poster presentation>

**Effects of orlistat/phentermine versus phentermine on vascular endothelial cell function in obese and overweight adults: A randomized, double-blinded, placebo-controlled trial**

**권유진**

배경: 비만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. 체중감소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치료 전략 중 하나이다. 본 연구는 오르리스타트와 펜터민을 병용하였을 때 펜터민 단독을 사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과체중 및 비만 환자에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 정도를 알아보려고 한다.

방법: 본 연구는 12주동안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군 연구로 진행되었다. 총 114명의 허리통증이 있으면서 동반질환이 있고 체질량지수가  $27\text{kg}/\text{m}^2$  이상인 과체중 환자 또는 허리통증이 있으면서 체질량지수  $30\text{kg}/\text{m}^2$  이상인 비만환자가 본 연구에 등록되었다. 실험군은 오르리스타트 120mg 하루 세번과 펜터민 37.5mg 하루 한번을 복용하였고, 대조군은 오르리스타트 위약 120mg 하루 세번과 펜터민 37.5mg 하루 한번 복용하였다. 두 군 모두 에너지 섭취량을 하루에 약 500kcal 줄이고, 경증에서 중등도 운동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도록 권고 받았다. 본 연구의 일차적 목표는 초음파로 측정된 혈관내피세포 확장 정도였다.

결과: 12주동안 오르리스타트와 펜터민 병용군과 펜터민 병용군의 평균 체중은 각각 6.1kg 와 6.0kg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두군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. 혈관 내피세포의 의존 기능평가에서 오르리스타트와 펜터민 병용군에서 혈관 확장정도의 초기값의 보정값을 보정한 뒤 위약과 펜터민 병용군보다 더 유의한 혈관 내피세포의 확장을 보였다. 혈관 내피세포 비 의존 기능 평가에서 양군의 혈관 확장 정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, 양군간의 차이 또한 없었다. 오르리스타트와 펜터민 병용군에서 총콜레스테롤과 Non-HDL 콜레스테롤은 각 초기값을 보정한 뒤 위약과 펜터민 병용군보다 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.

결론: 오르리스타트와 펜터민을 병용한 군에서 위약과 펜터민 병용군에 비해 유의한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을 보였다. 비만하거나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과체중인 환자에서 오르리스타트를 펜터민에 병용하여 치료하였을 때 심혈관계 위험을 개선할 수 있다.